

No.9

Japan Weekly Digest

2009. 11. 16 ~ 11. 22



사단법인 **한일경제협회**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■ CONTENTS

Japan Weekly Digest (No.9)

(사)한일경제협회
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www.kje.or.kr
www.kjc.or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
112-15 한일재단빌딩

TEL/02-3014-9888
02-3014-9898

FAX/02-3014-9899
02-3014-9800

□ 금주의 이슈

- 對일본 교역 비중 매년 감소
- 한·일 FTA 농업분야, 품목별 협상전략 필요
- 미쓰비시, BPA 생산 합작회사 군산에 설립
- 노동재판, 3년 전보다 3배 증가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李大통령, 하토야마 총리에 위로 서신
- 예산확보 난항, 공약예산 축소 검토
- 산요, 2015년 태양전지 생산 340% 확대
- 디플레 우려,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선언
- 한국에 밀린日가전 TV사업 축소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에코 포인트 연장 검토
- 지구온난화대책, 에너지 분야의 합동 워킹그룹 설립
- 나오시마 장관, GDP수치 사전유출 물의
- 중소기업 금융원활화임시조치법 첫 강행처리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일본 구조개혁특구사업의 성과와 시사점, 국토연구원

* 자료작성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일본지식정보센터

□ 금주의 이슈

- 對일본 교역 비중 매년 감소 (관세청, 11/19 발표)
 - 지난해 일본과의 교역규모는 892억달러로 2000년 이후 70.6% 증가했으나,
 - * 전체 수출액 중 일본 수출 비중 : 00년 12%→ 08년 7%
 - * 전체 수출액 중 일본 수입 비중 : 00년 20%→ 08년 14%로 감소
 -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327억불에서 올해 10월까지 223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22.3% 감소
 - 일본산 부품소재 의존으로 대외 수출이 증가하면 對日적자도 늘어났으나, '09.10월까지 총수출물량이 0.3% 증가했음에도 對日무역적자는 큰 폭으로 감소
 - 수입의 경우, 자본재 비중은 작아지고 원자재, 소비재 비중은 증가
 - 자본재 비중 감소는 설비투자 둔화, 국내 부품소재산업 육성, 수입선 다변화 등의 영향이며, 일본산 소비재 품목은 화장품, 승용차, 골프채, 청주(사케)임
- 한·일 FTA 농업분야, 품목별 협상전략 필요 (한일FTA세미나, 11/17 KIEP)
 - 한·일 FTA 체결로 돼지고기, 화훼류, 과실류 등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이 낮은 품목은 수출 증대 가능성이 크지만 오이, 가지, 고추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의 수출 확대는 한계
 - 일본의 농산물 관세율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낮은 수준, FTA의 관세 철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
- 미쓰비시, BPA 생산 합작사 설립
 - 삼양사와 일본 미쓰비시상사가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비스페놀-A(BPA)를 생산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전라북도 군산에 설립, 지식경제부가 관할하는 군산자유무역지역 내에 2011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
- 노동재판, 3년 전보다 3배 증가
 - 노동재판은 2006년 870건에서 2009년 2050건으로 증가, 불황에 의한 해고나 임금 삭감 문제가 급증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○李대통령, 하토야마 총리에 위로 서신

- 지난 14~15일 싱가포르 APEC 정상회의 기간 하토야마 총리를 회담장에서 만나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달
- 안전문제·사고를 비판했던 일본 언론들 “한국 정부 신속한 사과, 수습”에 긍정적인 평가 보도

○예산확보 난항, 공약예산 축소 검토

- 일본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차 심사 결과 1조 4천억엔 확보에 그쳐 목표액 3조엔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음
- 8.30 총선 공약인 고속도로 무료화 등은 예산확보 난항으로 축소

○산요, 2015년 태양전지 생산 340% 확대

- 산요는 2015년에서 태양전지 생산 목표를 1500메가와트로 설정, 산요는 태양전지와 2차 전지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녹색성장 열풍과 함께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

○디플레 우려,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 선언

- 올해 7~9월, 국내총생산(GDP)은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물가 변동을 반영한 명목 GDP는 기업수익과 근로자 임금 감소로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

○한국에 밀린 日가전 TV사업 축소

- 일본 가전 대기업 8개 업체의 글로벌 액정TV 공장 숫자는 최고 절정기였던 2000년대초 58개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39개 전후로 줄어들 전망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수요 침체로 TV사업 부문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대약진으로 사실상 ‘울며 겨자 먹기’식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강요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에코 포인트 연장 검토

- 간 나오토(菅 直人) 부총리 겸 국가전략담당상은 현재 박막형 TV, 에어컨 등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에 지급하는 에코 포인트 제도와 배출가스가 적은 친환경 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(최대 25만엔) 제도의 실시 기간 연장 검토
- 에코 포인트 제도는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, 내년 3월 말에 기한이므로 12월말까지 9개월 연장 방침
- 대상 제품은 가전제품이나 친환경 차량뿐만 아니라 LED 조명기구까지 확대

○ 지구온난화 대책, 에너지 분야의 합동 워킹그룹 설립

- 향후 온실가스 삭감은 주요 부처인 경산성뿐만 아니라 부처간 수평적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, 워킹그룹 설치로 에너지 분야의 연계 강화를 실현

○ 나오히마 장관, GDP수치 사전유출 물의

- 나오히마 경제산업상이 국내총생산(GDP) 데이터를 공식 발표 전에 유출, 따가운 시선 집중
- 일본 석유회社 관계자들과 회동 중에 올해 2.4분기(7~9월) GDP 집계 수치를 정확하게 언급, 공식 발표 시점인 8시 50분보다 30분 빠르게 유출했다고 지적

○ 민주당 중소기업 금융원활화임시조치법 첫 강행처리

-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상임위를 열어 '중소업자 등 금융원활화 임시조치법'을 가결 처리
- 야당은 이 법안이 금융이용자들의 모럴해저드(도덕적 해이)를 초래, 금융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
- 법안의 단독처리로 여야 관계가 급랭하여 정국 대치 중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‘일본 구조개혁특구사업의 성과와 시사점’, 국토연구원, 2009.11.10

- 일본 구조개혁특구사업은 특정 지역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철폐를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기반 구축,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
 - 지정된 특구는 정기적인 평가를 거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를 실험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
 - 우리나라의 「지역특구법」은 지역경제 활성화, 지방자립 및 균형발전을 목표로 일본의 「구조개혁특구법」을 벤치마킹하여 제도화했기 때문에 매우 유사
-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는 부분적으로 통합·수정하는 방식으로 유형을 구분, 국제물류, 경제, 산업, IT, 기술개발, 의료, 농업교류, 비즈니스, 교육, 행정, 생활복지 등으로 분류
 - 2008년 9월 현재 일본 전역에 총 1,041개의 특구가 있으며, 홋카이도 107, 나가노현 70, 도쿄 44, 오사카 29, 교토 24 등이 지정되어 있음
 - 지방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서도 특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지역이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수립, 차별화된 발전모델 사업추진 가능
- 특구사업의 효과는 건설투자액 증가 약 5,900억엔, 비용 절감액 260억엔, 취업자 수 약 1만8천명 증가, 대상시설 이용자수 6만2천명 증가, 연간 관광객 수 약 50만명 증가, 교통관련 이용자수 약 82만명 증가, 교육관련 대상시설 약 2,800개교 설치 등의 다양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
 - 특히 제도 도입으로 개혁이 지연되어 왔던 교육, 농업, 의료, 복지 등의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상당히 진전, 스스로 독자적 사업 구상을 통해 지자체 내부의 의식개혁, 직원의 정책입안 능력 향상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
-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사업규모가 큰 특구사업 신청보다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고 소단위의 항목부터 특구사업을 실현, 사업계획 심사도 단계별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